

변태소녀에게날개를달아주고싶은사람들

이화변태소녀테러사건

2008레즈비언문화제무지개걸개도난사건

이화변태소녀테러사건

출연진

(주연)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이화 기독교동아리 그레이트 비전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 쪽지자보와 이화이언에 무수한 댓글을 통해 변날을 지지한 이화인들, 단체들.

줄거리

2008년 변날의 레즈비언문화제 당시, 설치물인 무지개 걸개가 도난당했다. 문화제를 해 오는 6년 동안, 어김없이 벌어졌던 일이라 놀랍지도 않은 변날인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CCTV 확인결과 가해자들의 신원이 확보된 것. 이들은 예상했던 대로 그레이트비전이라는 기독교 동아리 구성원들.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 가해자들은 사과할 수 없다며 뻔뻔스러운 태도로, 오히려 변날인들을 아웃팅시키겠다고 협박해오는데.... 이들 가해자들에 맞서, 변날을 옹호하겠다고 나선 정의의 이화인들. 과연 이들은 이화의 성소수자와 자치활동을 탄압해 온 그레이트비전에 맞서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될지....

차례

1. 2008 레즈비언 문화제 무지개 걸개 도난 사건 일지

- ①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의 입장 7
: 무지개 걸개를 돌려줄 것과 가해자들의 사과를 요구
- ② 무지개 걸개를 훔쳐간 그녀들 11
: 당시 '그레이트비전' 대표 외 2인의 입장
- ③ 가해자들의 입장 글, 그 이후 15
: 지나치던 이화인,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옆에 붙인 작은 쪽지 글들.
- ④ 가해자들의 입장 글, 그 이후 20
: 불의를 보아 넘길 수 없었던 개인들의 성명
- ⑤ 가해자들의 입장 글, 그 이후 27
: 변날의 입장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성명

II. 사건의 전환, ...41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 결성부터

'그레이트비전' 중앙동아리 제명까지

①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 결성 43

② 비상동아리대표자 회의 48

: 요구안 이행을 거부하는 '그레이트비전' 징계 안건

③ 비상동아리대표자 회의결과 60

: 그레이트비전의 중앙동아리 제명 이후

III. 그 밖의 이야기들 69

: 사건을 둘러싼 다양하고 좀 복잡한...

① 이번 사건에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71

② 가해자의 '개인적 상처'는 무엇일까? 76

③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실린 기사: 누가 무지개 결개를 찢는가 ...78

④ 나오면서 83

어떤 남자아이가 양 갈래로 머리를 땀은 여자아이를 이유도 없이 때렸다. 선생님이 남자아이에게 왜 때렸냐고 묻자, 남자아이는 '그냥 양 갈래로 머리를 땀은 게 보기 싫어서'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이 남자아이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치자, 남자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널 때린 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난 앞으로도 너처럼 양 갈래로 머리 땀은 아이들을 평생 증오할거야. 이건 내 신념이니 까, 니가 나한테 이걸 바꾸라고 말할 순 없어."

여자아이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 이건 마치 앞으로도 평생 양 갈래 머리를 하고 다니지 말라는 협박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I. 2008년 변날 레즈비언 문화제
무지개 걸개 도난 사건 일지

9월 23일 새벽 1시 40분

학문관 2층 난간에 전시되어 있던 무지개 걸개가 사라진 것을 발견

9월 23일 새벽 1시 40분부터 4시

변날 활동가 및 객원 활동가 5명이 학문관 전체를 돌며 무지개 걸개의 행방을 찾고자 함

9월 23일 새벽 5시

걸개가 도난당한 것이라고 판단, 무지개걸개 도난을 알리고자 자보 작성, 학문관, 포관, 생활관에 게시.

9월 23일 낮 12시

걸개 도난사건의 가해자를 찾기 위해 CCTV를 확인. 1시간 여 만에 학문관을 빠져나가는 3명의 가해자들이 찍힌 영상을 확보.

- 22일 밤 11시 30분경 학문관에 들어온 세 명의 가해자는 봉투에 싼 무지개걸개를 가지고 23일 새벽 12시 30분 경 학문관을 빠져나감.

9월 24일 새벽 12시

가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CCTV가 찍힌 화면을 <변날의 무지개걸개를 돌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화이언에 게시. 소속 혹은 신분 공개와 공개 사과, 원 상태 그대로의 무지개 걸개 반환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25일 새벽 12시까지 요구안 이행을 촉구.

9월 24일 오전 11시 - 오후 3시

이화이언 게시글과 동일한 글을 학문관, 포관, 중도에 게시.

9월 25일 새벽 12시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음. 두 가지 요구안의 이행 기한을 26일 새벽 12시까지로 연장. 이화이언에 기한을 하루 연장하겠다는 글과 함께 학문관을 빠져나가는 가해자들의 뒷모습이 찍힌 영상 공개.

9월 25일 새벽 1시

가해자로부터 변날방으로 연락이 옴.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게이라고 했다. 이런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학생 문화관에 레즈비언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보니 다시 그 기억이 떠오르는 듯 하고 가슴이 아팠다. 혼자 하긴 어렵다고 판단해서 친구 두 명에게 도움을 청해서 무지개걸개를 걸었다"

"무지개걸개는 이미 내 손에 없어서 돌려줄 수 없다"

"공개 사과는 어렵다. 나도 학교 다녀야 하지 않겠느냐. 만나서 사과할 수는 없나"

"한번만 봐달라"

통화를 통해 두 가지 요구안의 이행이 불가하다는 가해자의 의사를 파악함.

9월 25일 밤 11시 55분

가해자로부터 변날방으로 2차 연락이 옴.

"지금 사과 자보를 쓰는 중인데 시간이 부족하다. 오전까지 연장해줄 수는 없나"

"무지개 걸개는 이미 버렸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 정말 버렸기 때문에 나한테 없다. 믿어달라"

9월 26일 새벽 12시

이미 제시한 두 가지 요구안을 들어 줄 수 없다고 판단. 24일 새벽 12시에 게시했던 글 그대로 가해자의 사진을 이화이언에 공개.

9월 26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가해자의 사진을 부착한 자보를 학문관, 포관, 학관에 게시. 이화인들의 제보를 받기 시작.

9월 26일, 27일, 28일

가해자들의 자보가 학문관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됨.

9월 29일 낮 12시

가해자로부터 변날방으로 3차 연락이 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오늘 자정까지 이화이언에 게시된 사진을 내리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

다"

"무지개 걸개는 현금으로라도 배상해주겠다"

"배상금을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9월 29일 오후

현재까지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 측이 변날에게 밝힌 입장을 정리한 자보를 학문관 1층에 게시. 이화인들의 의견을 받고자 함.

9월 29일 오후 5시

가해자 측에서 무지개걸개 변상비용 명목으로 20만원을 보내음.

변날에서 제시한 금액은 5만원. 20만원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 2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자보 게시.

9월 30일

사건 해결의 진전이 없자, 이외 신속한 해결을 위해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결성

10월 1일

가해자들의 공개사과 요구

10월 6일

가해자들의 답변 없자, 가해자 소속 동아리 그레이트 비전에 대한 공동의

책임(동성애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 포함)을 묻는 자보 게재

10월 8일

답변 요구일까지 그레이트 비전의 답변 없음.

10월 10일

그레이트 비전에 요구안 이행을 위한 요청 공문 발송

동아리 연합회 측에 그레이트 비전 징계를 위한 비상동대회 개최 요청

10월 13일

그레이트 비전 측에서 답변 없음

10월 16일(비상동대회 개최예정일) 새벽

그레이트 비전 측에서 입장 자보 게재

: 자보의 내용은 '요구안을 이행하겠다'는 사과가 아닌, 가해자 3인이 동아리를 자진 사퇴하였으므로 본 사건이 그레이트 비전과는 상관없다는 해명

10월 16일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그레이트 비전측에 연락해서 만남 제안.

: 첫 만남에서 그레이트 비전 측은 여전히 '가해자는 탈퇴하였으므로 본 사건이 자신들과는 무관하며, 요구안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은 그레이트 비전 측의 제명 조치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요구안 조정 후 다시 제안.

: 그레이트 비전 측에서 끝까지 요구안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

10월 16일 오후 6시 반

비상 동대회 개최

: 그레이트 비전 중앙동아리 제명 조치

① '변태 소녀 하늘을 날다'의 입장

: 무지개 걸개를 돌려줄 것과 가해자들의 사과를 요구

변날의 무지개 걸개를 돌려주세요!!

어제 새벽 12시경 사라진 무지개 걸개는 아직도 변태소녀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지개는 성소주자의 다양성, 자긍심과 정체체성의 스펙트럼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를 고의로 가져간 것은 단순한 절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저희는 밤새 무지개 걸개를 찾기 위해 학문관 구석구석을 헤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는 CCTV로 밤 11시 30분경 학문관에 들어와 1시간 후 무지개 걸개를 싣 봉투를 가지고 나가는데 세 명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세 명의 '정확한' 인상착의와 표정까지 드러나 있었습니다.

변날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신분과 소속 단체를 밝히고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위 사태는 단순한 '전시품'도난 사고가 아닌, 변날과 변날 문화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2. 가져간 무지개 걸개를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9/24 자정까지 위 요구안을 이행하지 않을 시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추후 강경대응하겠습니다.

Re: 변날의 입장입니다

변태소년 하늘을 날다 (이하 변날)은 이화인들의 제보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원과 그들이 속한 한 종교단체의 윤곽을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저희는 레즈비언 문화제 두번째 날 전인 23일 새벽, 학문관에 전시한 무지개 걸개를 도난당했습니다. 저희는 무지개 걸개 도난을 알리고자 학내에 자보를 붙이는 동시에 학문관 CCTV를 확인하였고 범행을 마치고 학문관을 빠져나가는 가해자들의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공개적 사과를 받기 위해 1차로 걸개가 포착된 장면만을 자보에 공개하여 하루의 기한을 더 연장해 이들의 시간을 가해자에게 주어 두 가지 요구안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전화를 두 차례 받았으나 모두 공개사과와 신분공개는 불가하다는 것과 무지개 걸개는 이미 버렸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다는 대답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애초에 요구한 두 가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에서 저희는 진정성 있는 속고가 이루어졌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닌 '한번만 봐 달라' '일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특히 공개사과 건의 경우는 변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이화인 모두의 권리가 침해된 만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었지만 가해자들은 믿기 어려운 개인사를 말해가며 의도적으로 책임 있는 사과와 행동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변날에서는 속고의 논의 끝에 2차 자보에서 CCTV 사진을 모두 공개하였고 이후 이화인들의 제보를 토대로 가해자들의 신원과 소속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변날에서는 이와 같은 대응을 하였으나 가해자들은 자보에서 드러났다시피 그들은 진정한 사과를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

고 29일 12시 경, 변날 측에 걸려온 전화에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무지개 걸개는 돈으로 변상해주겠으나 개인적 사과를 충분히 했으므로 공개사과를 할 뜻은 없으며 자신들의 사진을 공개했으니 변날 역시 신원공개를 불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가해자들의 사진을 공개한 것과 변날 활동가들을 공개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절도 행위이며 이는 곧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변날 활동가들이 익명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사진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변날 활동가들을 아웃팅 시키겠다는 발언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공개사과를 할 수 없다는 그들의 입장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자신들의 도난 행위가 정당하다는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곧 전화를 통한 개인적 사과가 상황을 일단락지어 비난을 회피하고자 한 것일 뿐임을 말합니다.

변날에서는 이화인들의 제보를 통한 가해자 측의 신원정보를 이미 모두 파악하였습니다(이름/단대/학번/전화번호/주소) 하지만 저희는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유보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이 아닌 무지개 상징성을 지키고 가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날은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를 통하여 이번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무지개 걸개=20만원?

변날 측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무지개 걸개를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에 대한 변상 방법을 물었습니다. 저희는 가해자 측이 처음 요구한 원상상태 그대로의 무지개 걸개를 어떤 방법으로든 반납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지개 걸개의 반납보다 공개 사과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 저희는 무지개 걸개에 대한 처음 요구 사항에서 한 발 물러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 측에서는 걸개 비용을 현금으로 배상하겠다고 하였고 저희는 5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5시, 변날 방문 밑으로 들어온 봉투에는 5만원이 아닌 2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시한 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저희는 20만원 전부를 되돌려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애당초 요구한 5만원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② 무지개 걸개를 훔쳐간 그녀들:

당시 '그레이트 비전' 대표 외 2인의 입장

변날과 이화인들에게 전합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학문관에 걸려 있던 변날의 무지개 걸개를 절거한 점에 대해서는 몇 차례의 자보와 인터넷 글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세 명은 동성애에 관한 개인적인 상처와 신앙의 이유로 인해 그러한 행동을 했으나, 그 행동이 절차적으로 옳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바입니다. 변날에서는 계속해서 진정한 공식적 사과를 요청하고 있으나 저희는 그 행동에 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 차례 했습니다.

변날 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저희도 저희의 믿음과 가치관을 따라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나, 저희의 가치관과 믿음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날은 저희가 소수의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으나, 변날의 행위도 저희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행동한 것에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테러범이란 단어를 운운하며 저희의 얼굴까지 공개한 것

에 대해서는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변날은 소수가 정한 아웃팅(OUTING)의 개념에 따라 자신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하며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행동이 설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캠퍼스에서 이화인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얼굴을 공개한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의 행동에 관해서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나, 개인의 얼굴을 공개하고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또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 목적 그 자체가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사용(투입)되는 수단은 실현목적에 비추어 합리적 관계, 즉 비례적 관계에 놓여야 하는데 변날 측이 얼굴을 공개한 것은 너무 가혹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변날 측은 스스로 가장 가혹하다고 하는 아웃팅을 저희들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변날 측에 무지개 걸개를 잃어버린 것에 양해를 구했고, 변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변날 측과 통화(9:29)해서도 서로 합의를 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변날 동아리 방 밑으로 변상금액을 가져다 줬습니다. 필요하다면 핸드폰 통화 내용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되어 있는 얼굴이 공개된 글은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누구보다 저희로 불거진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 변날이 요구한 사과와 변상에 대해 몇 차례 심사숙고해서 대답을 드렸고, 저희의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변날 측이 저희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들의 행동을 확대해석(성소수자의 인권을 모독했다는 등)해서 일방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9:29) 자정까지 저희들의 얼굴을 공개한 점에 관해서는 사과를 해주시고, 게시된 글은 삭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럴 의사가 없으시다면 앞으로

는 정확한 소통이 되지 않고, 변날 측은 개인적으로 만나기 어렵다고 하니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만 남을 뿐입니다. 이제는 향후 어떠한 반응에도 자보로는 일체 답하지 않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인 여러분께....

저는 변날의 무지개 걸개 사건의 CCTV에 포착된 한 사람입니다. 먼저 한 단체가 수고스럽게 준비한 문화재의 주요 기물을 철거하여 책임 없이 방치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날이 자보에서 언급했던-변날과 변날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려고-했던 행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후배의 개인적인 아픔에 동조를 한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이화여대는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당시 남존여비의 문화 속에 차별받던 여성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대를 입학하기 전까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와 기대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여성인재를 양성하기까지 성장한 이화여대에 자부심이 있었고, 이 학교를 건립한 분들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더욱 이화를 사랑하게 됐고, 진심으로 이화를 위해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화여대를 사랑하시고, 이화인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이화인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각자에게 다른 성역할을 주셨으며,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우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쓰는 것은 동성애자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찍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서로가 다르며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고 죄인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동성애 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애통함을 느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화에서 레즈비언 문화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의 양심에 의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걸개가 이화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문관의 전 방향에서 보이도록 걸려 있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만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화에는 많은 크리스천 동아리, 기도모임이 있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터넷에 올라온 '나도 크리스천이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이화의 크리스천을 대표하는 말인 건가요? 정말 간절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는 분들이라면, 저의 이 간절함에 한 마디 용기를 더해 주세요. 저의 행동에 동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레즈비언 문화가 이화에 들어와서 이것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인권을 모독한다고 말하는 것에 그저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이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③ 가해자들의 입장 글, 그 이후 : 지나치던 이화인,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옆에 붙인 작은 쪽지 글들.

다른 사람의 성의와 마음을 담아 전시한 물건을 합부로 제거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이 테러가 그분의 뜻이 아님을 믿습니다. 모든 종교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의와 마음을 담아 전시한 물건을 합부로 제거하는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이 테러가 그분의 뜻이 아님을 믿습니다. 모든 종교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편협한 인간의 사고의 틀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합부로 붙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들로 인해 많은 이에게 그분의 이름이 안 좋게 새겨질까 두렵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믿는 저의 양심으로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자녀인 변날의 고민과 고통과, 그럼에도 세상과 소통하려

는 용기를, 그들의 발언권을 존중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도 일련의 행위가 절도고, 테러라는 것은 또 한 번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통성애가 죄이기에 미웠다면 필자님, 저도 당신의 '범죄'를 미워해야 합니까?

그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하니 딱 몇 마디만 하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기본적인 말씀과 십계명의 "도독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어파버리고 자체해석 하십니까?

그대가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하니 딱 몇 마디만 하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기본적인 말씀과
십계명의 "도독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어파버리고
자체해석 하십니까?

나는 크리스천이고, 또 레즈비언입니다. 아마 이러한 나에게 당신은 물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는 크리스천이고, 또 레즈비언입니다. 아마 이러한 나에게 당신은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 크리스천이 맞
습니다. 당신은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
니까?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입니
까?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애용함을 밝히고자 했다면 그 방법도
그 분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했을 것
입니다. 당신은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당신의 행동은 정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레즈비언으로서 나는 당신의 행동에 상처받았고, 한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진정 당신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였습니까? 하나님을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었습니까? 부디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잔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페미니즘을 조우한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변남을 존중합니다. 변남의 책과 문화제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Amazing Grace"가 아니라 "Grace"를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성경 앞에 흠 없는 사람입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신은, 창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일단 박해하고 불 사람으로 보입니다. 걸만 보지 마세요. 당신이 종교적 신념으로 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앙이 너무 많은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했음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기독교 등을 오해할까봐 당신의 이 자보를 정말 떼고 싶지만 떼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행동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p.s.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난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만들고 인간사를 주재하는 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함에 남과 여를 구별해 조화를 이루게 한 것은 누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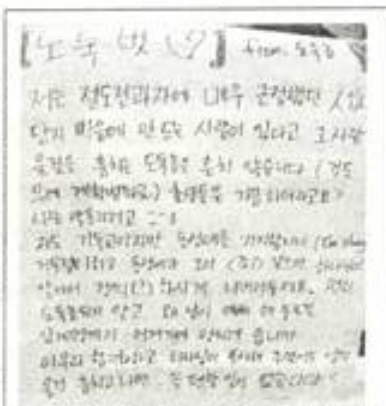
느끼는 것입니다. 동성애 역시 눈에 보이는 형체가 조화스러워 보이지 않을 뿐, 그들이 인격체로서 서로를 보듬고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을 조화가 아니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화란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남는 것은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 현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영혼이자 마음이지 그를 구속하는 신체가 아닙니다.

〈도둑뱃〉 from. 도둑놈

저는 절도 전과자에 매우 근접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물건을 훔치는 도둑놈은 흔치 않습니다(것도 무려 계획 범죄로) 초딩들은 가끔 하더라고요? 사람 약 올리려고 -;

저도 기독교이지만 동성애를 지지합니다.(I'm straight) 거두절미하고 동성애가 그리 <죄>같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죄(?)하시게 내버려두세요. 괜히 도둑놈되지 말고, 왜 남이 애써 해 놓은 걸 십계명까지 어겨가며 망치려 들니까. 아무리 합리화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도 남의 물건 훔치고 나면 속 편할 일이 없습니다!



제3자로서 당신의 잘못을 한 순간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인한 실수였거나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후회한답시고 적어놓은 글은 보기 거북할 정도로 자기 합리화와 감정에 호소하고 있고, 뭐랄까 비웃음만 납니다. 당신이 한 말 그 무엇도 당신의 입장을 대변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명백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사과하는 태도는 너무나 비열합니다. 자기의 편협한 생각을 마치 많은 기독교인들의 생각인양 이야기하다니 이젠 그 글을 통해 많은 기독교인들까지 모독한 점까지 사과하며 다시 글을 써서 붙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당신을 비난할 이화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④ 가해자들의 입장 글, 그 이후

: 불의를 보아 넘길 수 없었던 개인들의 성명

변발을 지지한다

-철학과 석사과정 송유진

애들아 안녕하세요? (이하 존대 생략 그냥 언니 편하게 말 함께) 요새 뭐 대사회적으로다가 다양하다 다양한 모든 소수자들이 다 같이 힘들게 사는 시국이니 잘 지내냐는 인사는 고마 생략해야겠어. 나를 대자보인데 공손하게 쓸까하다가, 뭐 학교 다닌 지 6년째 규탄도 하고, 어르고 달래고 혼내고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자주 모른다잖아. 학습능력이 없다보니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성적-이대화서 성찰 한 번 안하기도 참 힘든데 신기하지?-하물며 법적 성찰까지 다 안 된다는(뭐 이것이 다 각각으로 노는 성찰은 아니지만 적어도 6년째 계속 모르고 까먹는 치매상태를 내 익히 아는바, 이 폭력적인 행동이 얼마나 광범위한 문제인지 늘 어놓아 보았어) 몇몇 이상한 뇌구조를 가진 아이들은 이제 뇌 생리학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내가 고장 난 라디오도 아니고 같은 말하기 지쳐서 한동안 상종 안하는 방향으로 살다가, 이 언니 조교수형 중에 학생문화관 왔다가 뻔뻔함의 측면에서 더욱 진화한 신종 무식 자보를 보고 또 놀래버렸다. 그들은 꾸준히 모르고 이 언니는 꾸준히 놀랍구나. 니

들이 가면 쓰고 답 자보 붙이는 거 보고 속상해서 그냥 니들 힘내라고 한마디 쓴다. 나쁜 짓 한 사람, 니들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이 절도의 문제인가? 그렇다. 이것이 '종교관'-물론 니들이 종교관이 없다는 측면에서-문제인가? 그렇다. 그럼 이것이 동성애 찬반의 문제인가? 아니다. 동성애라는 한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양식과는 따로 떨어질 수 없다. 동성애는 누군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아우르는 '존재함'과 관련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누가 찬성하니 반대하니 하는 토론의 대상이나 이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다. 반대하면 어쩔 건가, 그게 무슨 말인가, 다 죽으라는 건가? 투명인간으로 살라는 건가? 누군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바로 '폭력'이다. 니들이 한 나쁜 짓은 단지 절도를 저지름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함이다. 다양성의 인정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고로 상관 마'라는 상대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다. 공동체 내에서 다르지만 함께, 행복하게 살기위해 필요한 건 상대주의적 무관심도 아니고, 나만 옳다며 무식하고 용감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며, 서로를 존중함으로 '함께 살아감'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다. 이것이 다양성의 인정이다. 이제 좀 듣고 무지의 암흑을 벗어나 누군가를 해치지 마라. 잘못했으면 "미안해, 용서해줘"라고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주저리주저리 되도 안한 변명질을 하고 있으면 어디 너희랑 같이 살겠니.

ps 그리고 이제는 제발 좀 "소수자" 개념을 공부해야 하지 않겠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라, 호모포비아라고!

-기독교 석사수로 흥해진

예수는 정결/부정결의 이분법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정하다는 낙인을 찍어 공동체에서 추방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설을 퍼부으며 정죄하였다. 그들이 정결/부정결의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을 일점일획도 거스르지 않고 준수하는가의 여부였다. 그러나 구약의 세세한 율법을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이스라엘의 민중들이 문자 그대로 준수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예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일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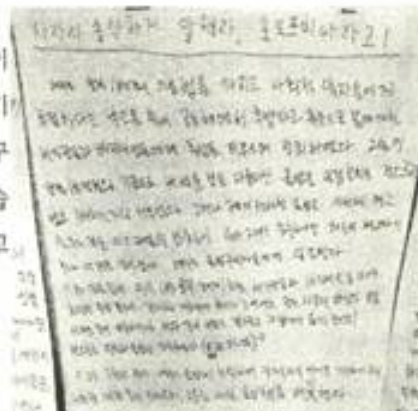
"화 있을 진저 외식(外飾, 겉치레)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태23:27-29)"

이미 2천 년 전에, 예수는 율법에 천착하여 약자들과의 연대를 거부하게 하고 사회적 기득권 측의 이데올로기 노릇을 하던 율법주의를 폐기했다. 그것도 아바, 아버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성서의 일점일획에 매달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소외된 자들 안에 있다고 위로하고 끌어안던 예수의 말씀에는 언제쯤 되어야 귀를 기울일 것인가? 예수가 맹금을 퍼부었던 성전 상인들, 부자들, 율법학자들에게는 그토록 관관대하면서, 도대체 왜 동성애자들에게는 그렇게 치를 떠는 것인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라, 나는 호모포비아라고. 그냥 생리적으로 싫고,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고, 무조건 성서를 끌어들이겠다고 해서, 나의 말이 곧 하나님말씀과 같아진다고 생각한다면, 회개하라. 그렇게 한다면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에게 일러,

"뱀들아, 독사의 새예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마태 23: 33)"라고 꾸짖던 예수의 비난을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p.s. 변날 여러분들,

다음 해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무사히 문화제를 치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형 옷 입고 고생하시는 모습에 늦게나마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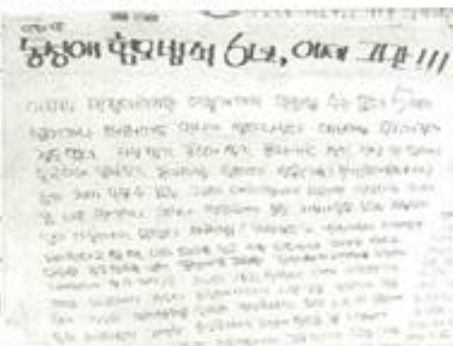
이화 안 동성에 혐오범죄 6년, 이제 그만!!

-여성학과 대학원 류혜진

아무리 막장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일 수는 없다. 5년이 넘어가니 테러에도 역사가 쌓이나 보다. 이번에는 무지개 걸개 절도였다. 자보 찢기, 포스터 찢기, 플래카드 찢기, 변날 방 앞에서 통곡하며 울부짖기, 동아리 방 안에다 성유(기름) 붓기, 등의 차마 믿을 수 없는 그러나 학문관에 붙은 자보내용을 보고는 정말이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테러범 ('레인보우'가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이의 의미를 알고 이를 의도적으로 폐기한 행위는 단순한 절도행위를 넘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테러행위라 할 수 있다)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외국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에게 나쁜 일을 겪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범죄행위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다. 나는 이 부분에서 특히 테러범의 강력한 호모포비아(동성애 혐오증)를 느꼈는데, 왜냐하면 이와 같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잘못 씌워진 오명(가령 '동성애자들은 모든 동성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변태이다'와 같은)을 근거로 들어 이들을

비난하는 방식은 전형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낙인찍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역은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이성애자에게 나쁜 일을 당했거든요'는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이성애자에게는 어떠한 오명도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예, 흑인, 유대인 등 그동안 특정한 역사시기에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이들에 대한 탄압방식도 비슷했다. "흑인에게 폭행당했어요", '유대인에게 사기 당했어요' 등등) 테러범이며, 솔직히 말하라. 당신은 자신이 동성애자에게 당한 피해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인 누군가에게 (이 글을 읽는 어떤 이화인, 바로 당신에게도) 피해-성적인 추근덕거림-을 줄 수 있다'는 동성애에 의한 공포감,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나. 더불어 이와 같은 여론 호도를 통해, 암암리에 존재하는 동성애 혐오감을 확산시키고자 한 것은 아니었나. '나도 동성애자에게 당했어, 너희들도 당할 수 있어. 내가 물건 훔친 것은 잘못했지만, 개네들은 변태잖아. 너희들도 조심해'처럼 말이다. 이것은 절도행위보다 더 강력하고 심각하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치사한 범죄행위이다. 또 새로 붙은 자보를 보니 외국에서 운운한 것은 떼어지고, 이번에는 CCTV 공개와 관련하여 변날에 요구하는 자보를 보았다. 아, 정말이지 다행이다. 그래도 당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고, 부끄럽다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으니 말이다.

부디 다시는 이와 같이 부끄럽고 용렬한 테러행위를 자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6년 동안 계속되어 온 "동성애 혐오 범죄"의 그릇된 역사가 이제는 정말 역사 속으로만 기억되고, 그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자행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소통의 이화를 꿈꾸어 보며

-여성학과 시진

길고 무더운 여름을 겨우 넘기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좋은 계절에 이화의 캠퍼스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화의 레즈비언 인권운동 동아리인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가 해마다 치르는 퀴어 문화행사의 설치물들이 기독교 신앙동아리 회원들로부터 훼손을 당한 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 같은 갈등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화 공동체'의 소통의 문화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이화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써 진심으로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학문관에 게시된 기독교원의 글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차별 당해 온 여성들을 위한 고등 교육기관의 설립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 믿고, 학원을 설립하였던 초기 이화의 선배들의 뜻이 훼손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는 이화의 거룩한 "기독교 이념"이 동성애를 표방하는 무지개 깃발로 인해 더럽혀졌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말하는 "기독교 이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 그 글을 쓴 이도 자기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며 소통과 화합보단 배제와 무시를 일삼는 것을 "기독교이념"의 참된 실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단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미숙하게 행동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여전히 반복되기만 하고, 반복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는 갈등의 크기만큼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관계 맺기 위한 허심탄회한 움직임을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정 이화를 사랑하는 기독교신앙인들이라면, 우리가 이화 울타리 앞에서 함께 살아갈 때 서로간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하며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이화의 "기독교이념"을 어떻게 더 넓고, 더 깊게 "변태"시켜서 세상과 만날 수 있을

것인지를 더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차이의 물이해로 인한 공포감을 극복하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관심과 우정의 따뜻한 마음들을 되찾을 경험을 다시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⑤ 가해자들의 입장 글, 그 이후

: 변날의 입장을 지지하는 단체들의 성명

변날 전시물 테러범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

-다양성을 존중받고 싶은 이화인들의 모임

1. 사과란 무엇인가?

네이X 검색결과 사과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이라고 한다. 테러범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사과란 무엇인가?

테러범 1:
테러범 2:
테러범 3:

사과의 사전적 의미에 견주어 볼 때, 테러범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단 개인적인 사정을 운운하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여기서부터 글러먹었으니 용서를 비는 태도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하랴?

2. 올해로 벌써 변날의 레즈비언 문화제는 여섯 번째이다. 무지개가 성소수자의 프라이드를 상징하며, 아웃팅이 성소수자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최소한 여섯 번이나 말했던 말이다!!! x 100

이러한 변날의 노력이 무색하게 테러범들은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모른다. 아웃팅이 뭔지도 모른다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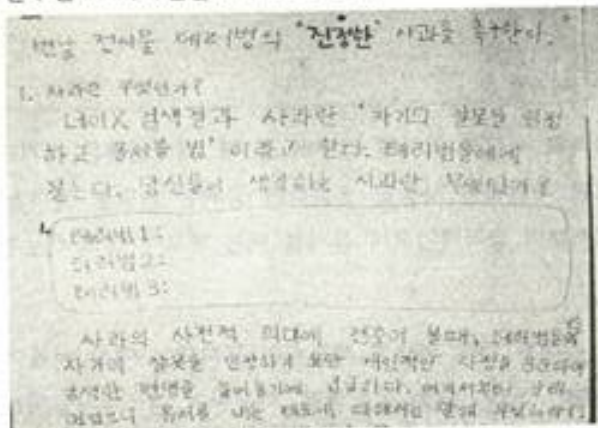
무지는 자람이 아니며, 그것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일 경우에는 '폭력'에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테러범들의 호모포비아에 기초한 명백한 동성애자(성소수자) 혐오범죄이다.

3. 레즈비언 문화제와 역사를 같이 한 테러사건은 지성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수많은 이화인들의 수치이다. 또한 학내 단체의 자보와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이화인들의 알 권리, 볼 권리 그리고 말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인권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4. 테러범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변날 전시물 테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3에 입각하여 만구천+a 이화인들에게 사과하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35절)

한 기 연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

- 들어가며

2007년 11월, 정부는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20가지의 차별 조항 중 성적지향, 학력, 병력 및 7가지를 차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논란이 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성적지향이 빠지게 된 것은 한기총을 주축으로 한 보수 기독교의 압박이 적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기총 대표회장은 "동성애 차별 금지는 장애, 인종 등에 따른 차별금지와는 차원이 다르며, 동성애는 비윤리적이고 성서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사안에 관해 가장 집단적이고 적극적으로 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곳은 바로 한국의 기독교진영인 것이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다. 그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참 착하고 좋은데, 그 선한 기독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이고 상처가 되는 얘기들을 거침없이 꺼내놓을 수 있는가'이다. 자신들의 교회를 비방했다고 방송국에 난입한다든지, 우상숭배라고 학교의 장승을 자른다든지, 동성애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때가 아니면 잘 모이지 않던 교회들이 이 일에 있어서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정치적으로까지 압력을 행사한다.

무엇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만드는가? 무슨 근거로 그들은 사람을 상처주고 자살하게까지 만드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기독교인들을 움직이는 행동근거의 한복판에는 성서가 있다.

'성서의 이름으로', '성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개인적인 감정과 가치판단 때문이 아니라 '성서에서 그들을 죄인이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이자 회개해야할 대상으로 본다고 말한다.

- 성서를 보는 관점

일반적으로 성서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편향이 있다. 하나는 근본주의적 입장으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물이므로 한글 자도 바꿀 수 없고 오류도 없는 문자 그대로의 진리라는 성서관이고, 다른 하나는 18세기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의 산물으로써 성서가 인간심리의 반영이거나 인간의 불안에 근거한 역사와 신화라는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서구에서는 근본적 입장이든 자유주의적 입장이든 이러한 담론들이 일찍부터 논의되고 신학적 입장으로 변해 나와 여러 갈래의 신학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근본주의적인 성서해석관이 많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근본주의적 성서해석은 축자영감설과 성서무오설로 대표되는데, 축자영감설이란 성서의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쓰기 하듯이 쓰였다고 바라보는 성서관이며, 성서무오설은 성서는 한글 자도,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서관을 뜻한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이런 관점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실제 한국사회에서 독재 권력을 옹호하거나 장승, 단군상을 자르는 것과 같은 행위 뒤에는 이와 같은 성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서구 기독교에서와는 달리 타 종교를 쉽게 이단시하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도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성서관이 옳다고 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묘사된 초대 교회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공동체에 헌납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다. 맑스의 사회주의가 이 구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경제정의와 평등과 나눔을 강조하는 이 본문내용은, 이를 어기고 재산을 조금 숨겼던 '아나니아'와 '사비라'라는 사람이 벌락을 맞아죽는 것으로 묘사될 정도로 강하게 지켜야할 초대교회의 규범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는 사회를 향한 경제적 구조적 평등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개인적 물질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거나 시혜적인 봉사차원의 나눔에서 머무른다. 예수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는 옷 두벌도 갖지 말라고 했다. 너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 그런 면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지막지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철저하고 무서운 공산주의자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누구보다 치를 떨고 경기를 일으킨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로마의 반인간적인 성전 중심의 경제구조를 뒤집었고 그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지금의 교회는 교회 자체가 많은 부를 소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는 부자가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였으나 지금 교회에서 경제적 성공은 하나님 축복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한국의 석학중의 한명이요 한신대를 설립했고 진보적 신앙인이라 평가되는 장공 김재준 목사조차 70년대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한국 기독교계로부터 이단시 당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모세오경이 한두 사람의 개인 저작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금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이다.

결론적으로 신이 앞에서 불러주고 인간이 받아 적은 종교경전이란 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성서가 미개한 옛날 사람들이 파편적으로 쓴 자료의 집대성인 것도 아니다. 많은 성서학자들과 역사가들에 의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성서는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오던 구전자료와 기록을 어떤 시대적 계기로 인해 수집, 편집, 재구성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단군신앙과 이야기들이 구전되어 오다가 고려시대에 와서 삼국유사를 통해 정리, 소개된 것과 비슷한 이치인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성서는 단순한 역사책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성서의 기록은 그 시대의 역사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그 사실 여부에만 집착하게 되면 성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려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성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라는 성서의 큰 맥락에서 지금 맺고있는 나와 이웃, 나와 사회와의 풍성한 삶, 자유로운 삶을 위한 기도상대, 대화상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성서는 수천년 전 어느지역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유이자 상징이며 고백인 것이다. 성서를 과학과 동일선상에 놓고 경쟁하게 될 때 우리는 성서에 고백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존재와 관계와 삶은 더욱 편협해지게 된다.

- 질문의 전환. 동성애자는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

성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중심사상과 고백을 전제하지 않고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해답만을 성서에서 찾으려 한다면 결론은 나지 않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을 성서에서 찾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다.

동성애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동성애가 죄인가 아닌가 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성경구절 하나하나를 들어서 여기

에 그런 구절이 있네 없네 열 올려서 토론하기도 하고 각자의 더 옳은 논리를 찾기 위해 머리 싸매고 성경과 신학책을 뒤적거린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동성애를 죄나 아니냐로 판결 내리는데 관심이 있는 것일까? 성서를 관통하는 중심내용은 지금 동성애자들에 대해 어떠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가?

신약성서에는 간통(성서의 표현은 '간음')을 했다는 이유로 죽을 위기에 처해있는 한 여자를 예수가 구해준 이야기가 나온다.(요한복음 8장 1절~11절) 내용을 좀 더 보면 간음을 했다는 이유로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구약성서(레위기 20장 10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 당시 유대의 법은 간음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것이었기에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같이 간음한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간데없고 여자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같이 죄를 지었으면 같이 처벌을 해야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법도 남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튼 600개 이상의 법을 모두 지키며 살아가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지에 대한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기에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죄를 지었나 짓지 않았나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이러한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예수는 그 여인이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그 죄가 죽을 죄였는지 죽을 정도의 죄는 아니었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 그 자체에 관심이 있었다. 관점자체가 다른 것이다.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는 그 여인의 공포와 절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에게는 오직 떨고 있는 한 여인만이 보였다.

장자가 '인간의 시비는 끝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한 시대의 가치와 법률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동성애가 특권층만 향유하는 성의 고귀한 가치였다가 혐오스러운 가치가 되기도 하고 간음이 모든 사람이 죽일만한 상식적인 범죄행위였다가 개인을 침해하는 인권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 시대의 도덕과 윤리는 역사적이고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기준은 무엇인가?

성서와 예수에게 있어 그 기준은 바로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이었다. 그래서 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어 땅에 쓰러져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자신의 몸을 낮추어 여인의 등에 손을 얹는다. 그 여인의 절박한 감정을 예수도 느끼며 함께 하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과 예수의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성서 곳곳에 드러난다. 성서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제자들은 그 사람이 소경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묻는다.(요한복음 9장 1절-12절)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개인에게 병이나 우환이 들면 그것은 그 사람 또는 부모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적 사상이 강했으므로 이러한 질문은 대단히 상식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소경인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제자들은 그 사람의 죄의 유무가 중요했지만 예수에게는 소외당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었다가 갑자기 예수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위가 격상된 것이다. 그 소경은 더 이상 병자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태어날 때부터 수행하는 신의 대리인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예수는 누구도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심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정치적, 종교적 규율과 싸우고, 아픔과 고통이 그 사람에게 존재한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의 편이 되었다.

만약 동성애는 죄인가 아닌가?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문제인가 아닌가? 선천적인가 후천적인가...? 등등을 예수에게 묻는다면 예수는 오히려 동성애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가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 이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고 대답하는 본문이 나온다.(누가복음 10장 25절-37절)

2000년 전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이웃이 누구인지, 동성애자는, 노동자는, 성매매여성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지만 예수는 이런 질문을 '가서 이웃이 되어주어라'라는 대답으로 뒤집는다. 왜냐하면 예수의 시선은 그것이 죄나 아니냐를 구분해주거나 판단하는데 있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위로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동성애가 죄나 아니냐?'는 질문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 잘못된 질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이제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를 성서에 묻고 규명하려 할 것이 아니라 아픔을 겪고 있는 동성애자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를 성서에 물어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서는 앞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시오'라는 얘기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형제는 자매만 자매는 형제만 사랑하시오'라든지,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사랑할 때는 적당히 사랑하시오'라고 경고해 주어야 한다.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 하다가는 그 사

람이 죄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성애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자에게만 적용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떤 성기를 가진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예수가 2000년전 이 땅에서 행했던 것은 '너희가 죄인이니 천국가려면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망하고 지옥간다...'는 협박이 아니라 길 잃은 어린양처럼 외로움과 두려움에 움츠러 있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었다.

2003년 자살한 동성애자 육우당으로부터 2008년 총선에서 커밍아웃하고 출마한 최초의 레즈비언 국회의원 최현숙 후보까지 성소수자들에 대한 뉴스거리는 다양해졌지만 그들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우리들은 그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돌을 던지고 있으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행위에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한사람과 함께 하기위한 역사 또한 여전히 진행형이며 그것은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묵묵한 실천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므로..



이화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일부 보수 기독교 학생들의 동성애 억압에 반대한다.

전쟁과 신자유주의, 억압과 차별에 반대하는

〈다함께 이화여대 모임〉

〈변날〉의 6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변태〉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지지 속에서 열렸다. 레즈비언 문화제는 1961년 미국의 스톤월 항쟁에서 시작한 동성애 해방 운동의 일부이며, 편견과 차별에 맞선 저항의 표현이자 축제이다.

그러나 문화제가 열릴 때마다 학내의 보수 기독교 단체는 이 문화제에 대해 비난하고 공격해왔다. 문화제의 게시물이 찢기거나 사라지거나, 자료집이 도난당하는 일이 있었다.

올해 레즈비언 문화제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화제 게시물의 옆에는 '술, 담배, 마약, 죄는 ... 쓰고, 쓰라리고, 쓰러지게 한다.'는 내용의 보수 기독교 동아리의 전시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2일째 밤에는 보수 기독교 학생들에 의해 동성애의 상징인 무지개 걸개가 도난당했다.

아직까지도 학교와 직장, 군대 등 사회 곳곳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멸시와 폭력이 만연해있고,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들의 용기 있는 표현과 저항을 지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보수 기독교 가해자 학생은 동성애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죄'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구약성서에서 자신의 딸을 노예로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불경죄를 저지른 사람을 돌려 쳐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하는가? 다른 공동체 출신의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행위도 인정해야 하는가?

동성애는 '죄'도 회개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억압하고 성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죄'다.

가해자 학생은 또한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기독교인을 대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 억압과 차별에 맞서서 싸우고 있다. 한기연은 '예수는 약하고 소외받는 사람 옆에 서서 그들을 위해 싸웠고, 기독교인이란 도리어 오늘날,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동성애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수 언론들과 기독교권층은 항상 동성애가 비정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편견을 조장한다. 한국에서도 정부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동성애자 단체들의 투쟁으로 2004년 삭제되기 전까지 동성애를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있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발에 밀려 차별 금지법안의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명박도 대선 후보 시절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동성애에는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동성애 혐오 이데올로기는 여성차별,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을 분열시킬 뿐이다. 동성애자 억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우리들의 단결을 원치 않는 자본주의 체제와 기독교권층이다.

우리는 이화 안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동성애 억압에 반대한다. 성경의 권위를 빌어 성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언제나 차별과 억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2008년 9월 30일

이화에서 공공연히 자행되는 일부 보수 기독교 학생들의 동성애 억압에 반대한다.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는 1946년 설립된 이래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육해 온 대학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보수 기독교 학생들의 동성애 혐오 발언과 차별 행위로 인해 이화의 평판과 교육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동성애 혐오 발언은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동성애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힌다. 또한, 동성애 혐오 발언은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동성애 혐오 발언은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동성애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힌다. 또한, 동성애 혐오 발언은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동성애 혐오 발언은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동성애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힌다. 또한, 동성애 혐오 발언은 동성애자를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

II. 사건의 전환,

‘번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 결성부터

‘그레이트 비전’ 중앙동아리 제명까지

①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

변태 무지개 걸개 도난 사건 가해자들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변태 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의 레즈비언 문화제 당시 무지개 걸개 도난사건과 관련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단체와 자유로운 개인들이 모여 만든 모임입니다.

학내 레즈비언과 성소수자들이 펼치는 활동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이화인으로서의 권리입니다. 레즈비언 문화제는 레즈비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로, 2003년부터 매년 이화에서 열려 왔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제는 이화 내에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와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화 레즈비언 문화제는 그 시작부터 순조로웠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2003년 5월 첫 레즈비언 문화제 당시 사건일지〉

첫째날: 동아리방에 배포용으로 남겨두었던 문화제 자료집 수 백 권 도난

둘째날: 수 백 장의 포스터가 대부분 찢겨 나감.

모 기독교 동아리 회원으로부터 증언 확보한 내용에 따르면,

기독교 동아리 소속 몇몇이 변날 방에 잠입하여, 자료집을 훔치고, 동아리 방에 기름(성유)을 뿌림, 또한 방에 몰래 잠입하여 동아리방을 사진으로 찍어 서울 소재 교회 등지에 '이대에 레즈비언 변태모임이 생겼다'는 내용의 공문 발송, 학교 측에도 공문 전달.

실제로 이후 신촌 일대의 교회, 몇몇 서울의 교회에서 이대 레즈비언 모임을 비난하는 내용을 예배시간에 언급하고, 통성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또한 학내에서는 기독교 동아리들이 집단적으로 변날을 비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물론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몇몇 기독교 집단들은 변날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비난을 일삼아 왔습니다. 2005년 세 번째 레즈비언 문화제 때는 새벽을 틈타 외부에 게시되었던 자보들이 모두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찢겨진 자보를 다시 이어 붙이고 손질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지만 그 다음 날 밤 무지개 걸개가 도난당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도난당한 걸개는 결국 학생문화관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문화제 기간에 맞추어 열린 기독교 문화제 기간 동안 변날 자보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전시물 옆에 성경을 인용한 통성에는 '죄'라는 피켓을 세워 두는 등 이런 식으로 매회 레즈비언 문화제 때마다 어김없이 전시물은 파손되고, 포스터는 찢겨 나가고, 레인보우 깃발이나 걸개가 도난당하는 일들이 벌어져 왔습니다. 변날은 문화제 기간 동안 행사를 지속하기 위해, 밤을 새워 전시물을 지켜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지개 걸개 절도사건 또한 몇몇 개인에 의해 충동적으로 일

어난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옳지 않은 신념을 고수하는 몇몇 집단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폭력이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고, 기물파손과 절도행각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테러와 다름없습니다.

6년이 넘게 역사적으로 자행되어온 이와 같은 조직적인 테러는 이제 역사속으로 퇴장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온 집단은 이제라도 마음 속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배후 앞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변날은 가해자들에게 충분히 사과할 기회를 준 후, 응답이 없자 예고했던 대로 동영상과 CCTV화면을 통해 가해자들의 신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태도를 반성하기는커녕, 신원공개를 들먹이며 오히려 피해자인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진심어린 사과대신 '내가 싫으니 까 그랬다'는 식의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범행이 드러난 이후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이에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고,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문화가 발현되는 이화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가해자들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범행이 드러난 가해자 3인은 0월 0일까지 변날과 이화인들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개사과문을 게시해

주십시오. 그 사과문 안에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운 변명이 아닌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사과문은 최소 5부를 자보크기로 제작하여 교재 게재하고, 이화이언 게시 판에도 게재하십시오.)

2008년 10월 2일

가해자 소속 동아리, 그레이트 비전에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인 여러분.

우리는 다년간 반복되어온 성소수자에 대한 테러와 폭력의 역사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화에서 이러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인, '변태소녀에게 날개로 달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10월 2일 대자보를 통해 가해자 측에 10월 6일까지 진심어린 공식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이 저지른 테러는 '개인에 의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은 이화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자 3인은 개인적 이유와 더불어 '종교적 신념'이라는 말을 대자보에 명기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이 폭력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첫걸음을 내딛으려 합니다.

가해자 3인은 기독교 동아리 "그레이트 비전"의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그 구성원인 가해자들이 '종교적 신념'이라 명명한 이 폭력 행위에 대해, 소속 동아리인 "그레이트 비전"이 연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그레이트 비전"이 가해자 3인을 비롯한 구성원들과 함께 '성소수자 바로알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가해자 3인과 "그레이트 비전"에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1. 이번 폭력 행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
2.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타인에 대해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성소수자 바로알기' 교육에 참여할 것

또한 위 요구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레이트 비전"은 구성원인 가해자 3인의 폭력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회피하는 바, 해당 동아리가 소속된 동아리 연합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답변은 10월 8일 오후 5시까지 학생문화관 1층 로비 등에 게재해 주십시오.

2008년 10월 6일

② 비상동아리대표자 회의

: 요구안 이행을 거부하는 '그레이트 비전' 제명

중앙 동아리인들과 이화인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화 내의 성소수자 탄압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의 레즈비언문화제 무지개 걸개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동아리 그레이트 비전의 책임이 막중한 바, 그레이트 비전에 대한 동아리 연합회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차례나 그레이트 비전과 대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레이트 비전은 단 한 차례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레이트 비전은 줄곧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기회로서 바로 이 자리에서 가해자 3인 및 그레이트 비전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요구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조차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동아리연합회에 그레이트 비전의 중앙동아리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요구안 1. 변날의 무지개 걸개 도난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식적 동아리 입장 발표

요구안 2.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동성에 바로알기 교육" 이행 (가해자 3인을 포함한 동아리인들)

(1) 가해자 3인 중 1인은 그레이트 비전의 대표입니다.

가해자 3인은 스스로 자신들의 행동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며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앙동아리 그레이트 비전의 구성원일 뿐 아니라, 그 중 1인은 동아리 대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사건은 당연히 그레이트 비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그레이트 비전이 '동아리와 상관없는 개인이 한 행동'이라 주장한다면, 이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변날 활동에 대한 동일한 태도는 첫 번째 문화제가 열렸던 2003년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되어 왔습니다.

무지개 걸개 도난 사건과 같은 변날의 활동 및 학내 레즈비언 활동에 대한 탄압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 년 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몇몇 개인의 충동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계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간의 범행들은 변날의 활동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이 낱알이 드러났음에도 그레이트 비전은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레이트 비전과 대화하려고 매우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그레이트 비전에 대해, 우리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3) 그레이트 비전의 범행(절도행위, 이후의 아웃팅 협박까지)은 중앙동아리 구성원으로서의 위상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가해자 3인의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어느 학내 도난사건처럼

형사고발 및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사건이 중동적인 개인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어 왔던 성소수자 활동에 대한 폭력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 3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이화에서 다양성이 보장되고 다르다는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화 내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자신의 주장과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권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지성의 장으로서 이화의 정신이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이화의 공공성을 위해 활동을 펼치는 중앙동아리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가해자들은 절도행위 및 기물파손으로 변날의 활동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아우팅 시키겠다는 협박까지 자행함으로써 이후 변날 및 학내 성소수자 활동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 또다시 변날의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본 사건이 비단 변날 뿐 아니라, 이화 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의 권리에 심각한 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3인과 그 소속동아리인 그레이트 비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자리에서조차 잘못을 인정하고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앙 동아리 구성원 및 중앙동아리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중앙동아리 자격 박탈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간략한 사건 일지는 다음과 같습니다.(세부 사건일지: 첨부1.)

9월 23일 새벽 1시 40분

학문관 2층 난간에 전시되어 있던 무지개 걸개가 사라진 것을 발견

9월 24일 새벽 12시

가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은 CCTV가 찍힌 화면을 <변날의 무지개걸개를 돌려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화이언에 게시. 소속 혹은 신분 공개와 공개 사과, 원 상태 그대로의 무지개 걸개 반환을 요구함.

9월 26일 새벽 12시

가해자들로부터 연락 와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으니, 한번만 봐 달라"며 반성하지 않고 무마하려는 태도로 일관함. 사건 해결을 위해, 할 수 없이 CCTV 가해자의 사진을 이화이언에 공개. 신원 확인 이후 변날의 사진 삭제

9월 27-9일

가해자들이 자보가 게시 후 연락해 와 변날에게 '우리 신원도 공개 했으니, 변날 구성원들도 신원공개를 불사해야 할 것'이라며 2차로 아우팅 협박해 옴.

9월 30일

피해 당사자인 변날이 가해자들의 협박에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결성

10월 1일

가해자들의 공개사과 요구-응답 없음

10월 6일

가해자 소속 동아리 그레이트 비전에 사건 해결을 위한 입장 표명 요구-응답
없음

2008년 10월 16일

『변태소녀하늘을날다』의 호소문

문화제가 진행되던 9월2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달여가 지나가는 기간 동안 학문관 로비에 붙여져 있던 자보를 많은 이화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변날과 가해자 측의 자보, 또한 이화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자보와 리플들을 읽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변날을 지지해주셨고 성소수자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하는 말로 용인되어오던 테러에 대해 이화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화인들이 저희를 지지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저희의 대처를 긍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마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리고 글 한자 적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무심하거나 오히려 변날을 지지하는 의견들에 반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날 역시 한달에 이르는 시간동안 많은 고민들을 하였고, 대화를 하였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익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당연히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절박함이 이화인들에게 얼마나 전해질 수 있을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제를 이어온 지난 6년의 시간동안 저희는 외부 집단의 테러에서부터 단 한 번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아리 공연이나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강하게 외부의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쉬운 단어로 말하자면 공포감이자 두려움입니다. 당한 만큼 되갚아준다는 복수심이나 앙심이 아닙니다. 변날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웅크리고 '할 수 없다'는 식의 체념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솔직하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을

말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려 합니다.

이번 테러사건이 진행된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자신들의 얼굴을 공개한 만큼 변날 역시 신변 공개를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 자신을 인정받으며 떳떳하게 남 앞에서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 변날 활동가가 되는 순간부터 몇 년이 지나 학교를 떠나게 되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했으며 우리가 누구였는지 말 할 수 없습니다. 밤을 새며 만든 문화제도, 우리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글들도 그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과정이 나 자신이 여기 있음을 숨겨야 하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의 이런 상황에 얼마만큼 공감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는 스스로 유별나고 싶어서 성소수자가 되기로 자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반항아처럼 우리는 소수자라고 투정부리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이번 테러 사건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겉으론 조용해 보이는 변날이라는 공간 안에서 저희는 정체성을 고민하고 서로 의지하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성 소수자라는 단어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저희는 위협받고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고 이번 테러사건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가해자 측에 요구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말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가해 당사자들은 저희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었고 대면으로 이야길 하자며 저희의 반응을 묵인하는 가해자들의 행동은 저희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가 구성된 것은 변날로서는 마지막 기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비대위의 발표내용, 지금까지의 테러일지를 보시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젠 동성애에 대해서 옛날보단 생각이 개방됐지" 하고 쉽게 답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 변날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안됐구나, 하고 멀리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저희의 손을 잡아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비전'의 호소문

"동아리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변날 무지개결개 사건과 관련, 그레이트 비전의 중앙동아리 자격 박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그레이트 비전 운영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에서 동아리 연합회 측에 그레이트 비전의 제명을 요구했고, 이에 관해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16일(목) 전체 비상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레이트 비전의 의견 및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채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의 입장만을 근거로 동아리인들에게 알려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 일이 그레이트 비전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또한 이제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고 조용하게 마무리되길 바랐기에, 변날의 일방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명건으로 비대위가 소집된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동아리인들에게 그레이트 비전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레이트 비전의 중앙동아리 자격 박탈에 대한 논의의 부당성을 모든 동아리인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1. 그레이트 비전의 중앙동아리 제명논의에 대한 부당성

2008년 6월 개정된 '동아리 연합회 회칙 상의 제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6장 57조

3. 제명에 해당되는 경우

가. 동아리 대표자 회의 연속 3회 결석

이 회칙에 의거하여 저희 그레이트비전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날은 그레이트비전의 연대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개 결개 사건은 소속 동아리원이었던 당사자들이 개인적 경험과 신앙에 근거에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었음을 밝힌 바 있으며, 그레이트 비전 내부에서는 사전에 거론된 일조차 없었던 행동입니다. 오히려 그레이트 비전의 다른 회원들 역시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을 자보를 통해 알았습니다.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은 공문에서 지난 무지개결개 관련사건에 대한 그레이트 비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레이트 비전의 연대책임을 묻는 이유는 관련자 3명이 본 단체에 소속되어있으며, 관련자 징계 등을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일에 대해 그레이트 비전이 공식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동안 '변날'측에서 공식적인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앞서서도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이 그레이트 비전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고, 또한 일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이유로 그동안 자보대응 등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날이 자보를 통해 요구한 요구안은 그레이트 비전의 연대책임을 기정사실화 한 채, '동성애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을 받으라는 취지의 내용이었기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었습니다.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에서는 그레이트 비전의 중앙동아리 자격박탈을 요구하며 '중앙동아리 구성원 및 중앙동아리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단체에 속한 회원으로 인해 이렇게까지 학내에 문제가 확대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문제로 동아리의 위상을 운운하며 제명까지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2. 그레이트 비전의 현 상황과 입장정리

그레이트 비전은 누구에게나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개인의 양심을 표현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변태 소녀 하늘을 날다'(이후 변날)의 문화제 기간 있었던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합니다. 더불어 변날의 문화제가 수 년 간 조직적으로 방해받아 온 일에 본 동아리가 연루되어있다는 식의 추측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임을 밝힙니다.

현재 무지개 걸개 사건의 관련자 세 사람은 자진 탈퇴의 의사를 밝혔으며, 그레이트 비전에서는 내부적 논의를 거쳐 운영진을 교체하고 이번 사건과 연루되지 않은 새 대표단을 구성하여 동아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사건이 그레이트 비전 차원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그레이트 비전의 활동상황

그동안 '그레이트 비전'은 이화의 연합과 발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레이트 비전은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는 전통있는 동아리입니다. 내부적으로 개인의 신앙 성숙과 동아리원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모임과 양육, MT 등을 꾸준히 가졌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화인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화여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가치를 가지고 스승공경캠페인, 복음이 담긴 영화 상영(기독교 영화 상영), 문화강연,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행사 등을 개최했고, '큰 꿈을 꾸는 이화인이 되자'는 취지를 가지고 '비전 페스티벌'을 매해 개최하여 많은

이화인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학내 동아리들의 연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여왔습니다. 동아리 연합회 소속 동아리로서의 동대회 및 연합회 차원의 일에 늘 성실히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2004년~07년까지 그레이트 비전 구성원이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장으로 역임하며 분과와 동연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연임하게 된 것은 그레이트 비전의 의지라기보다는 해마다 각각의 사정이 있었으나, 그토록 오랜 기간 분과장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분과를 비롯한 많은 동아리인들이 그레이트 비전의 위와 같은 노력을 인정하고 신뢰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레이트 비전 임원진과 구성원들은 이번 탈퇴한 구성원에 얽힌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이화인들과 동아리인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에 밝힌 바와 같이, 그레이트 비전은 이번 일에 연루된 대표를 경질하고 사건 당사자 3명을 탈퇴처리하는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이번 사건이 본 동아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이화와 이화인들을 위해 낮은 자세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계속해서 동아리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아리 대표자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③ 비상동아리대표자 회의결과:

그레이트 비전의 중앙동아리 제명 이후

비상동아리 대표자 회의 결과

찬성: 34표

반대: 20표

무효: 3표

‘그레이트 비전’이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번태소녀에게 남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레이트 비전의 동아리 제명에 부처-

어제 비상동아리대표자대회(비상동대회)에서 ‘그레이트 비전’의 중앙동아리 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동아리연합회 측에 제명안건을 제안하기에 앞서, 본 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무척 노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한 달 여 기간 동안, 우리는 수 십 회에 걸쳐 가해자 측과 그레이트 비전과 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우리는 비상동대회 직전까지도, 그레이트 비전과 대화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없는 그레이트 비전에게 우리가 수차례 만나기를 제안했고, 그들의 주장에 따라 우리의 요구안을 거듭 수정했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백 번 양보했습니다. 비상동대회 자리에서조차, 대표자 여러분들께 “우리는 그레이트 비전이 요구안을 수용한다면, 제명 조치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트 비전은 끝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결국 ‘그레이트 비전이 제명조치 된 것은, 이들이 이화 안에서 동아리 활동을 펼칠 자격이 없음을 많은 분들이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 자진사퇴한 가해자들 개인이 한 행동이므로 동아리는 상관없다는 입장

그레이트 비전은 동대회가 열리는 전날에서야 가해자들이 자진사퇴했으니, 동아리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 사건은 첫째, 가해자 3

인 중 1인은 그레이트 비전의 대표였고, 둘째 지난 6년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의 맥락에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인이 저지른 중동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해자를 개인이 저지른 행동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2) "자매들에게 칼 끝을 겨눌 수 없다"는 그레이트 비전의 숨은 입장

이는 그레이트 비전이 결정적으로 본 사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그레이트 비전에게 "동성애 바로알기 세미나"를 요구했으나, 가해자들이 이미 사퇴했으므로 동아리 차원에서는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당사자인 가해자들에게 공개사과 및 동성애바로알기 세미나에 참여할 것을 권고"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레이트 비전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같은 자매들이므로, "변날의 입장에 서서 칼끝을 겨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변날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동성애 관련 세미나"를 요청하는 것이 다양성을 해치는 것인가.

그간 그레이트 비전 측은 그간 변날의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방식의 대응을 옹호해왔습니다. 그들은 변날의 활동과 같은 성소수자의 활동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을 저질러왔습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기 위한 권리로 인정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레이트 비전에게 "동성애 관련 세미나"를 제안했고, 이는 그들에게 특정한 신념을 강제로 주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성적인 소통을 모색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레이트 비전은 이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적 신념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될 수 있는가.

그레이트 비전은 어제 동대회 자리에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우리의 가족 같은 자매들"로, "변날의 사과요구"를 "칼끝을 겨누는 행동"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동성애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신념이 올바른 것이라 믿는 그레이트 비전의 신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레이트 비전의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주장이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혐오와 편견에 의한 것이며,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임을 밝힙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취향이나, 행동양식이 아니라 인간존재를 규정하는 본질적 정체성에 가깝습니다. 인간존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은 그 자체로 심각한 폭력이며, 어떤 이유로도 옹호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변날과 우리의 입장에 지지를 보내주신 수많은 이화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을 계기로, 이화에서 다시는 변날과 성소수자 활동에 대한 공공연한 테러행위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8년 10월 17일

함께 할 수 있는 기억이 된, 나의 기억.

-2005, 2008년 변남문화제 테러에 대한 짧은 단상

레고

나는 2005년 9월 레즈비언문화제를 기억한다.

학생문화관 밖에 붙여놓았던 자보 열댓장이 갈기갈기 찢어져 바닥에서 구르고 있었던 그 새벽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 다음날, 무지개 걸개를 도난당해 학생문화관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을 뒤질 수 밖에 없던 그 새벽도 기억난다. 찢어진 자보를 한 조각 한 조각 붙여나가는 동안 '너, 동성애자지?'라며 누군가 내 등을 찌를 것 같은 공포감이 나를 압도했다. 도난당한 무지개걸개를 찾아다니며 혹시라도 범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불안에 저절로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 때 그 기억은,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였다.

그 때 나를 공포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의 이름은 다름 아닌 호모포비아였다. 행위주체는 볼 수 없었지만 그 주체가 벌인 행위의 결과들만으로도 나는 호모포비아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2008년 9월 레즈비언문화제를 기억한다.

문화제 첫째 날 새벽 3시, 나는 잠을 청하고 있었다. '이젠 테러가 없어지지'하는 혼잣말과 함께. 그러나 상황은 달랐다. 변남 활동가인 친구에게 문자가 왔던 것이다. 또다시 무지개 걸개를 도난당했다고. 2005년도의 공포가 나를 휘감았다. 그리고 그 공포에 놓였을 변남 활동가들이 떠올랐다. 나는 당장 몸을 일으켜 학생문화관으로 향했다. 몇 년 쯤 호모포비아에 대해서는 꼭 이야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성정체성에 대한 테러는 왜 이렇

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가. 이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찬성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인권의 문제라고 매 해마다 외쳐오고 있는데. 학생문화관에 가까워질수록 2005년 그 기억이 생각나서 자꾸만 주위를 둘러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느 새 몸이 자꾸만 떨리기 시작했다.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내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다. 그러한 행동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공포를 느껴야 하는지 듣고 싶었고, 차라리 내 자신에게 해명할 수 있다면 하고 싶었다.

그 다음날, cctv에 가해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번에는 뭔가 힘이 생기는 듯 했다. 단순히 공포에 의한 좌절과 후회가 아닌 이 공포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변태소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순식간에 모이기 시작함과 동시에 학내에는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담긴 자보를 쉽게 볼 수 있었다. 변남을 지지하는 이화인들, 자신은 레즈비언이며 기독교인이라고 자보를 통해 외치는 목소리들... 그것은 너무나 폭력적이었던 호모포비아의 양태에 맞서는 이화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의 지지가, 목소리가 내게는 꽤나 힘이 되었고 적잖은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나 혼자서는 이 혐오범죄에 맞서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게 단지 활동하는 사람 몇이었던다면 외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화인들의 지지와 힘을 믿고 우리는 활동을 계속 해 나갈 수 있었다. 우리의 활동을 지지한 여러 이화인들도, 그리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 모두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았던 시간들로 기억되면 좋겠다.

작게, <변태소녀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의 활동은 일단락 지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지속적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단순히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적인 사건 때문에

연대하는 모습이 아닌, 일상적으로 나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대하여 지지하는 모습으로 말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이화에서 폭력적인 형태를 가진 호모포비아를 조금이나마 뽑아버릴 수 있는 기억으로 모두에게 남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움직임과 목소리들이 2005년, 내가 가진 그 공포를 치유했으리라.

변태소녀의 이름으로...

제6회 레즈비언 문화제의 시작부터 사건의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변날의 무지개 걸개 도난 사건은 이화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으로 커다란 관심과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문관에서 이화인들이 직접 목소리를 낸 수많은 자보와 리플들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화인들이 변날을 응원해주셨고 이는 그 동안 사회적으로 묵인되어왔던 호모포비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에 이르는 시간 동안 변날 구성원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였고, 대화를 하였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서 완전히 커밍아웃하지는 못하고 활동하는 변날 구성원들이 익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란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 자신을 인정받으며 떳떳하게 남 앞에서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처음 변날 활동가가 되는 순간부터 몇 년이 지나 학교를 떠나게 되는 그때까지도 우리가 무엇을 했으며 우리가 누구였는지 말 할 수 없습니다. 밤을 새며 만든 문화제도, 우리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글들도 그것이 내가 한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런 과정이 나 자신이 여기 있음을 숨겨야 하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라는 공간 안에서 저희는 서로 의지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조심스러운 행보를 만들어갑니다.

동성애는 행위(doing)이 아닌 존재(being)입니다. 그 누구도 존재 자체에 대한 찬반, 허용과 불허를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호모포비아로 인해 동성애자는 그 이름만으로 존재를 '반대'당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서 성정체성이 폭로되는 경우(아웃팅)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심지어는 가시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화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안에서 더 이상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읽으신 여러 글들을 보시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동성애, '인정'은 하지만 나와는 별로 관계없는 것 같아", 이라고 쉽게 답하기 전에 지금 여기 '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인 변날이라는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를,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혹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는 '성소수자' 라는 이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II. 그 밖의 사건들

사건을 둘러싼 다양하고 좀 복잡한 이야기들

① 이번 사건에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수연(여성학과)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어찌된 일인지 들어보려고 변날 방 문을 두드렸다. 아마 변날 사람들과 대화해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이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변날 가해자가 밝혀진 직후, 학내에서 보기 드물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이에 의견을 표명했으며, 여기저기서 토론의 목소리가 들렸다.

6년 동안 매년 레즈비언 문화제 때 테러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는 처음이었다. 나는 가해자들의 태도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흥분했다. 가해자가 밝혀졌다면, 잘못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더욱 분명해 질 테니까. 게다가 그들의 행동은 분명 '도둑질'이 아닌가. 어찌면 앞으로 이화에서 레즈비언 문화제 때 더 이상 테러의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들로 흥분했던 것도 잠시, 변날 사람들

과 대화하면서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소행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신원이 공개된 것에 분노를 표했다고 한다. 게다가 되려 '변날' 사람들도 신원공개를 불사하여야 할 것'이라며 아웃팅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최상급이다.

학교 측에 도움을 청했나는 질문에 대한 변날 측의 설명은 더 가관이었다. 학생처에 본 사건의 해결을 물었더니, 변날 소속원 모두의 이름과 학번을 써서 달라고 했단다. 법정에서도 고소를 하려면 피고소인 뿐 아니라 고소인의 신원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면, 변날 소속 학생들의 신원을 알 수 없다면, 학생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단다. 게다가 가해자 학생들도 본교의 학생들이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단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학교가 언제부터 '법정'이 되었는가? 물론 학교는 언제나 구성원들 중 약자의 편에 선 적이 없다. 그러니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학교는 다만 언제나 그렇듯 일이 커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꺼려할 뿐이다. 그러니 이번 사건도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고 바랄 뿐이겠지. 그러나 변날이 신분공개를 꺼려하며 어렵게 활동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건을 덮으려는 학생처의 태도가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학교는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정의의 집행인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2003년에도 변날은 학교와 유사한 마찰이 있었다. 학교는 변날의 행사를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허가하지 않았다. 변날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안을 받아들여, 한 달간 행사를 미루고 두 배의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결국 이리저리 허가를 미루던 학교가 들어낸 이유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기독교 단체가 변날을 반대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우리가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니 변날도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기독교 단체의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는 자유로운 신념의 표현이기 이전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유색인종을 반대한다'는 주장이나 '여성을 반대한다' 혹은 '장애인을 반대한다'는 주장이 가능한 주장인가? 유색인종, 여성,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층이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권리의 침해이다. '동성애'가 유색인종, 여성, 장애인과 모든 속성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동성애를 일탈이나 별난 취향쯤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정체성 혹은 자아를 구성하는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요소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많은 연구자들이 밝혔듯, 동성애는 그것이 속한 사회·문화적 속성에 따라 정상, 비정상으로 나뉘어 왔다. 어떤 사회에서는 이성애보다 가치로운 것으로 취급되기도 했고(고대 그리스), 성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로서 상서로운 지위에 놓여있기도 했다(인디언의 버다취).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사실 '동성애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탄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서구의 많은 사회들에서 이미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국제 인권 기구 등에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마당에, 변날의 전시물을 매년 '불법적으로' 훼손하면서도 자신의 기독교적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그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다. 루대포로 성경이나 믿음을 들이대는 못말려 기독교도들은 그렇다 치고, 최소한의 논리적 기준을 갖춰야 할 학교의 판단력은 어디로 갔는지.

기독교 단체들이 변날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는 집회 따위는 당연히 학교의 이름으로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 어떠한 자기주장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폭력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왜 변날의 활동을 허가하지 않았을까. 이는 학교 측이 기독교도들의 집회와 변날의 행사를 동급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 즉 변날 활동이 그 자체로 폭력과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이는 학교 측의 숨은 잣대, 즉 변날과 같은 성소수자 모임에 대한 편협과 이러한 활동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변날의 활동에 대해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었겠는가. 변날의 활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는커녕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권리를 증진을 목표로, 공공성을 추구하는 활동임이 분명한데 말이다.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 활동을 하면서, 자보를 붙이는 과정 중 있었던 일이다. 학생문화관 로비에 자보를 붙일 공간이 없었기에, 자보 중 붙은 시기가 가장 오래된 총학생회 자보와 학생처 자보를 바닥 쪽에 옮기기로 했다. 옮긴 다음 날,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 소속 단위들은 모두 학생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내용은 '어찌 감히 학교이름의 자보를 바닥에 옮겨 붙일 수 있느냐'는 항의였다. 심지어 나도 전화를 받았다. 소속된 단위도 없이, 개인 이름만 자보에 올렸을 뿐인데, 50명의 개인이름 중간에 섞인 흔하디 흔한 내 이름을

보고, 어찌 연락처를 알았는지 너무 신기하여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3년 전 대학원학생회를 했을 무렵 알고 있었던 연락처로 연락을 한 것이란다. 정말 놀랄 '노'자라 말할 수밖에.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전에 한 학생회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게 연락을 돌릴 에너지가 있다니. 게다가 그 사안이 고작 '바닥에 옮겨 붙인 학생처 자보를 원래 자리로 옮겨놓으라'는 내용이라니.

격양된 목소리로 내게 항의하는 학생처 직원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다. 학교의 명예는 바닥에 붙은 자보 따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가 수용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② 가해자가 겪은 '개인적 상처'의 내용은?

가해자가 자신이 테러를 저지르게 된 배경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개인적 상처'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신념'이다.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테러가 옳지 않음에 대해,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견을 발표하였고, 또 그로 인해 중앙동아리 제명까지 당했으나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이유인 '개인적 상처'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밝히도록 하겠다. 처음에 가해자가 '개인적 상처'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글을 보고, 나는 그게 '성폭력'이라 생각했다. 많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 마치 '성의 화신'인양 생각하고,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만 보면 잡아먹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 잘못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레즈비언에게 성폭력 당했어요'라고 말하면 꽤 설득력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물론 레즈비언이 성의 화신이거나, 성욕을 억제 못하는 부류는 아니다. 이

는 철저히 레즈비언, 혹은 동성애가 과도한 '성욕'의 결과라는 편견에 근거한 '거짓말'이다. 실제 성폭력은 이성간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성폭력으로 인한 '개인적 상처'로 치자면 이 세상 남성들한테 겪은 성추행 없는 여자들이 어디 있으랴.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이성애자들만 보면 테러를 감행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넘겨짚은 것은 비단 나 뿐 만이 아니라 생각된다(위의 '류혜진'씨 개인 자보 글에도 이렇게 가해자의 '개인적 상처'를 성추행으로 넘겨짚은 부분이 등장한다). 따라서 약간의 해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해자가 겪은 '개인적 상처'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녀가 변날의 레인보우 걸개를 훔쳐가고, 테러를 감행하도록 만든 그 무시무시한 경험의 실체는 무엇인가?

내용은 이렇다. 가해자는 외국 유학중에 웬 남자를 짝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좋아한다고 고백했더니, 그 남자가 자신이 '게이'라고 말했다.

두둥!

그렇다. 이게 가해자가 겪은 '개인적 상처'의 내용이다.

도대체, 가해자는 어떤 남자한테 차인 화풀이를 왜 변날한테 하는 건지도 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가해자가 테러를 저지른 것 자체도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이런 '개인적 상처'를 갖고 있으니,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매우 쪽팔려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있는지?

③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실린 기사

아래 글은 본 사건에 대해 '여성주의 저널 일다(www.ildaro.com)'에 실린 기사입니다. 일다와 기사교류 협약에 따라 '다음(www.daum.net)' 메인 화면에도 실렸습니다. 기사를 본 후, 많은 이화인들이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누가 무지개 걸개를 찢는가

대학 레즈비언문화제 매년 기독교도들에 테러당해

[여성주의 저널 일다] 시로

이화여대에서는 매년 레즈비언 문화제가 열린다.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 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이하 '변날')에서 주최하는 이 문화제는 200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벌써 6회를 맞았다. 변날은 대학에서 동아리지원금과 동아리방 등을 제공받고 있는 '공식적인' 모임이다.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하기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대부분 대학의 동성애자모임들은 학교에서 정식기구로 인가받아 활동하는 경우가 드물다. 때문에 변날의 '공식적인' 지위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레즈비언 문화제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다.

자료집 훑치고, 전시물 찢고, 성유 뿌려

레즈비언 문화제는 기획에서 실행까지 변날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데, 회원들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문화제를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전시물을 게시하기 위해 모두 함께 밤을 새워 아무도 없는 새벽에 움직이곤 한다. 바닥에 떨어진 전시물을 보수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곰돌이 탈을 뒤집어쓰고 돌아다니는 것을 고안해내기도 했다.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에 왜곡된 이미지를 입혀 무거운 사회적 낙인을 찍어버리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다.



▲ 레즈비언 문화제에 대한 기독교학생들의 계속되는 테러에 항의하는 내용의 자료를 보고 있는 학생들.

그러나 문화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따로 있다. 누군가로 인해 전시물이 훼손당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매년 문화제 기간에 빠짐없이 전시물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됐다. 레즈비언 문화제의 전시물 훼손은 몇몇 개인에 의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특정종교를

믿는 집단에 의해 계획적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되고 있다.

2001년 첫번째 문화제 때는 학내 기독교도들에 의해 자료집 수백 권을 도난당했고, 무지개 걸개와 자보 역시 도난당했다. 변날 동아리방과 전시물 등에는 기독교도들이 사용하는 '성유'가 뿌려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방에 몰래 잠입한 이들은 사진을 찍어 각 교회와 학교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레즈비언을 위한 기도회'를 하자고 요청하기까지 했다. 동성애를 '죄'로 몰아가는 기도회와 예배는 지금까지도 몇몇 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레즈비언 문화제에서도 역시 누군가 전시물을 찢어 놓고 문화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지개 걸개를 흠쳐가 버렸다. 다행히 이번엔 법인이 잡혔는데, 모 기독교 동아리 소속 3인이었다. 변날은 이들에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한 행동이었다며, 마치 자신들이 순교자라도 된 듯 '도둑질'을 정당화했다. '하나님이 무지개 걸개를 떼라고 시키셨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들의 신원이 공개되었으니, 변날 회원들의 신원 또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동성애자 혐오차별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 권리향상을 위해 누군가 위협을 감수하며 정성껏 준비한 문화제를 도난하고 훼손하며 공격하는 행위에 대해, 그 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 레즈비언 문화제 전시물을 흠치고 찢고 훼손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성소수자 운동에 가해지는 폭력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라도 되는 양 묵인되곤 한다.

2003년 이화여대는 변날 측의 장소사용 허가요청을 불허해서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로 국가인권위에 제소된 바 있다. 당시 대학 측은 레즈비언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기독교도들의 집회를 불허했으므로, 변날의 활동 또한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는 중립적 입장이라는 것이다. 무지개 걸개 도난사건이 발생한 현재에도 대학은 유사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태도가 중립적인 것일까?

학교 측의 반응은 동성애자에 대한 기독교학생들의 차별과 혐오범죄행위를 레즈비언 학생들의 인권활동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성애자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에 테러를 가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한 권리'가 될 수 있는가.

'무지개 걸개 도난 사건'은 비단 특정장소에서 일어나는,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종교적 신념'을 운운하며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이 가해지는 일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성적지향' 목록이 삭제될 당시에, 기독교집단들은 동성애자로부터 마땅히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 반대했다. 또 지난 해 법무부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 조항이 누락된 배경에도 기독교집단의 로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들은 신앙을 들먹이며 곳곳에서 끊임없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유포시키고 정당화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레즈비언 문화제를 훼손한 이들은 자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총학생회와 자치단위들, 개인들이 연합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찌 보면 한 대학교 안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사건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왜

냐하면 이 싸움은 대상이 '폭력', '혐오' 등의 관념이 아니라, 눈앞에 드러난 폭력행위와 가해 집단이 있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대항하여 변화를 가져오는 힘, 그것은 이러한 사건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2008/10/07 [11:30] © www.ildaro.com

④ 나오면서....

논문 쓰겠다고 등록한 대학원생이 이런 걸 해도 되는지...혼자 이런 저런 생각할 틈 없이, 그저 변날 방에 있는 후배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변날을 만들어 놓기만 하고, 졸업 이후 후배들과 교류 없이 묵묵히 수업만 듣고 왔다갔다 했죠. 제가 했던 1회 문화제 때 범인을 잡았다면, 좀 더 주의 깊게 전시물을 지켰다면, 그 때 끝낼 수도 있는 일이었을 텐데...제 잘못은 아니지만, 6년 동안이나 힘들게 고생한 후배들이 안쓰럽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범인을 잡았는데도, 되려 아웃팅 당할까봐 동아리방조차 오기가 힘들다는 말...어쩌면 6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지, 괜히 미안했습니다.

어쨌든, 미안함과 분노가 적절히 섞여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타올랐죠. 얼굴도 모르는 한참 아래 학번이지만, 자치운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고, 여러분은 흔쾌히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른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이 함께,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회의부터 함께 해 주신 총학생회 연사국장님, 우리 모임의 이름 아이디어 내주신 민주노동당 민희씨, 열혈 참가자이신 여성학과 현수씨, 단위와 상관없이 개인으로라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던 여성위원회 다현씨, 그레이트 비전을 잡아 드실 뻔했던 말빨의 유진씨, 막판에 수업까지 빠져가며 그레이트 비전과 협상안을 함께 고민해주셨던 다함께 지현씨, 뒤늦게 소식들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법대 학생회장 나래씨, 마지막까지 글 쓰시느라 고생하셨던 레고

씨. 언제나 소수자의 편에 서서 '믿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한기연'도,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무척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변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서 가장 많은 고민과 두려움에 맞서주신 여러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6년간이나 테러를 당하면서도 매해 곳곳이 문화제를 지속해왔기에, 올해의 성과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성과는 '그레이트 비전'의 동아리 제명이라기보다는, 이화에서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점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다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화였기에 가능했고, 많은 부분 변날의 지속적인 활동에 힘입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물 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쓰고,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며 자보를 붙여왔던 변날 모습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변날의 주위에 언제나 도움을 줄 사람들이 곁에 있고, 이화의 많은 사람들이 변날의 활동을 묵묵히 지지하고 있음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는 부디 이화에서만이라도, 성소수자 활동에 대한 테러 뿐 아니라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백지 자보에 서명을 통해 지지의사를 밝혀 주신 이화인들, 익명으로 쪽지 자보를 써서 의견을 표현해주신 이화인들, 이화이언 익명게시판을 통해 응원해주신 수많은 이화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0월, 이화에서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시로

변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

함께 뛰어다니는 사람들

레고, 현수, 시로, 송유진,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천화, 박하, 김네, 랍다, 은달, 레나, 수라, 린, 파이), 여성위원회(다현), 민주노동당 이화학생위원회(박민희),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 다 함께 이대모임(성지현), 해방이화 40대 총학생회, 40대 법대 학생회(양나래)

함께 뜻을 모아주시는 사람들

57대 대학원학생회, 시진, 연우, 날개, 양갱, 말자, 오두진, 사과, 오스칼, 이영주, 이지현, Frost, 수민, 살구, 박현지, 썩, 박한나, 조연, 장윤정, 뭉글, 이현수, 효임, 양현지, 김영지, 김효정, 광모, 찐소, 장영주, 로미, 큰개, 08 이정서, 08 김현경, 06 윤영수, 06 서승현, 05 나무, 한국학 석사과정 김재니, 08 이진우(카이스트), 경제 05 박아름, 기독교학 석사수로 홍혜빈, 이화여대 대학원 철학과 : 황정, 조은일, 민경연, 김슬기, 임유나, 나수현, 한경옥, 김남희, 임오주, 강윤희, 홍지영,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류혜진, 전보경, 최수연, 김신효정, 김윤미, 이은주, 정다래, 김노을, 김효정, 고미

진, 노미선, 홍혜미, 주선숙, 김정은, 김진숙, 김두나, 이화여대 대학원 기
 독교학과: 정솔잎, 문한나, 이남경, 홍혜빈, 이화여대 졸업생 00학번: 배현
 진, 하진, 함영, 고연경, 이고운, 01학번: 유지수, 김지은, 권지혜, 신희수,
 김성은, 이정민, 02학번 김문주, 김지혜, 김지영, 03학번: 임선정, 이기현,
 이지은, 07김가희, 06리나, 05김유진, 04배진아, 08 김아랑, 06 박혜림, 05
 장유경, 08 SHW, 89학번 진은영, 07 김보라, 03 이금화, 05 이유민, 05 김
 시원, 08 조선혜, 04 김신애, 06 지주영, 06 정재현, 05 송섬별, 07 심가영,
 08 김현경, 06 오현경, 림쌍, 06 철학 이해정, 07 정민정, 04 배진아, 05 태
 림, 05 양진선, 04 김은지, 08 정지연, 04 정현록, 07 노성연, 07 김효인,
 05 강보경 08 김시연, 07 이효경, 07 한빛나, 08 봉예나, 08 문성진, 07 고
 차원, 06 강화연, 08 강한주, 08 박수현, 08 박혜진, 08 이정금, 06 SHJ 이
 외에 서명해주시고, 동참해주신 수 많은 이화인들

번태소녀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싶은 사람들

2008년 11월

편집인 시로

디자인 천화

* 본 자료집은 이화자치단위연합회의 예치비를 지원받아 만들어졌습니다.